

독서문화는 인간미 넘치는 회사를 만드는 중요한 매개 공사현장에 '우림나눔도서관' 운영하는 우림건설

건축공사 현장에 도서관이 있다면? 서울 강서구 염창동 우림블루나인 비즈니스센터 현장, 경기 화성 동탄 게이티드하우스 현장, 경기 구리시 인창 우림필류 현장, 청주 신봉동 우림필류 현장에는 미니 도서관이 설치돼 있다. 지난 2005년 11월부터 '우림 나눔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우림건설은 현재 전국 14개 현장에 약 1만 여 권의 책을 구비해 놓았다.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 현장 주변 주민들에게까지 개방한다는 우림나눔도서관을 둘러보았다.

글 정윤희 기자 | 사진 우림건설 제공



우림건설이 공사현장에 도서관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발상의 전환'에 있다. 거칠고 동적인 현장이야말로 독서문화가 필요한 곳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사현장이 개설되면 우림나눔도서관에 최소 500여 권의 기본 도서를 확보하고 우림건설 추천도서, 각 현장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기부도서, 희망신청도서 등 매월 20여 권 씩 늘려나간다. 현장 직원, 가족뿐만 아니라 현장 주변 시민들에게까지 개방해 책을 대출해 주고 있다.

독서경영의 모범이 되고 있는 우림건설은 CEO의 독서편지를 서문에 담아 매월 임직원, 소의계층, 협력업체, 군부대 등에 책을 나누어주고 있다. 심영섭 대표이사의 경영철학은 독서경영이



공사현장에 도서관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발상의 전환'에 있다.

책을 읽으면 진지해진다. 심영섭 대표이사는 독서문화가 성장의 동력이라고 설명한다.



다. “문화적 향유를 통해서 인간은 좀더 감성적으로 풍부해지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으며, 이는 사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직원들의 가치를 키울 수 있는 과정”이라며 독서문화가 성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의 지하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쉽게 목격하는데, 우리나라 지하철에서는 대부분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무가지 신문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책을 읽는 사람은 진지해진다. 심영섭 대표이사가 최근에 추천한 도서는 《주홍빛 베네치아》《매혹의 기술》《지도밖으로 행군하라》 등이다.

우림건설이 지향하는 비전은 지식형 건설회사이다. 지난 10년간 140여 회 이상의 초청강좌를 실시하고, 독서나눔과 더불어 시낭송 행사인 ‘포엠우림’ (pomewoolim), 독특한 조희문화 등에서 차근차근 실천해 오고 있다.

김용택 시인, 도종환 시인을 비롯해 김덕수 사물놀이 강연, 한비야의 오지여행,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나의 문화답사기 강의, 부동산전문가 등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해 오고 있고, 매달 한 편의 시를 선정해서 본사 및 각 현장에 게시한다. 이러한 독서문화, 시문화의 결정체가 매달 열리는 우림건설의 조희이다. 자랑스러운 우림인상, 하이파이브상, 프레드상, 베스트스마일상, 경호상, 그레이트챌린저상, 이달의 독서대상 등 상 이름도 책 제목에서 따왔고 칭찬하는 조희문화의 중심에도 책이 있다.

우림건설은 1996년부터 시작한 책 나눔 캠페인과 매달 이어오는 문화초청강연 그리고 시노래 모임인 나팔꽃의 공연후원 등 메세나 활동도 적극적이다. 2005년에는 메세나 창의상을 수상했고, 독서경영과 조직문화 활성화를 인정받아 미국 카네기연구소로부터 Carnegie Leadership Award를 수상했다.

우림건설 강승규 공사지원 본부장은 “책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독서나눔의 기업문화와 기치 공유의 중요한 수단인데, 공사현장에서의 독서나눔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

